

상완골 대결절 단독 골절의 스프링 금속판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 결과

대구파티마병원 정형외과

신동주 · 변영수 · 장세양 · 윤희민 · 박호원 · 박재영

상완골 근위부의 대결절 골절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골절-탈구에 수반하여 과도한 회전근 개의 작용에 의한 견열 골절의 형태로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상완골 근위부의 골절에 비해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고 견관절 탈구가 흔히 동반된다. 이러한 대결절의 단독 골절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견관절의 통증 및 운동 장애를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주로 유관 나사못, 봉합사, K-강선 등을 이용한 다양한 고정법이 보고 되고 있으나 고정력에 제한이 있어 관절 강직을 예방하기 위해 술 후 보다 엄격한 재활 과정이 요한다. 비구 후벽 골절의 치료에 쓰이는 스프링 금속판은 분쇄가 심하거나 관절연을 침범할 경우에도 충분한 고정력을 제공하여 조기 관절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저자들이 이용한 스프링 금속판은 얇은 1/3 관형 금속판의 마지막 나사 구멍을 잘라서 사용함으로써 견봉과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며 끝부분의 탄성을 이용하여 골편을 압박할 수 있어 강한 고정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상완골 대결절 단독 골절에 대하여 스프링 금속판을 이용하여 내고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대결절 단독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 중에서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은 51세(범위, 25-73)였으며, 5례에서 견관절 전방 탈구가 동반되었다. 모든 예에서 삼각 흉근 도달법으로 접근하여 스프링 금속판을 이용하여 고정하였으며, 골편의 분쇄 정도 및 위치에 따라 회전근개를 통한 봉합, 골편간 나사 또는 긴장대 고정을 추가하였다. 임상적 결과는 UCLA scoring 및 KSS (Korean Shoulder Score)를 이용하였다.

결 과

UCLA 점수는 평균 29.8이었으며, KSS는 평균 89.4이었다. 금속 내고정물 실패로 재수술을 했던 1례를 포함하여 전 예에서 평균 10.2주(범위, 7-14)에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다. 고정실패 1례, 관절 강직이 4례, 감염이 1례에서 발생하였으며, 감염은 창상치료로 치유되었다.

결 론

스프링 금속판을 이용한 상완골 대결절 단독 골절의 치료는 신뢰할 만한 임상결과를 제공하는 좋은 치료방법이라 생각한다.

색인 단어: 상완골, 대결절 단독 골절, 스프링 금속판